

2024-15호

DaWinKS Weekly Report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Contents

1. Company Activity

- 다원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 Digital ATM 운영 현황
 - :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 충전), 디지털머니 출금, 해외송금, 택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삼청동점 / 명동중앙점 /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파트너사 소식
 -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시니어 창업,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사하라 스트리트, RWA기반 디파이 첫 출시...글로벌 RWA 시장공략 본격화
 - 블록체인투데이-오디션벤처스, '웹3·블록체인 사업' 전력적 제휴 체결
 - '리브랜딩' 포블, 이용자가 직접 뽑은 BI 공개... "성공의 키 되겠다"
-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2. Blockchain News

- 비트코인 디포 CEO "가상자산 ATM, 반감기 이후 급증 예상"
- Global crypto funds rebound with nearly \$900 million in net inflows last week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투자액 14억 달러 돌파
-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 "비트코인도 쓸모가 생기기 시작했다"...레이어2·NFT 활성화 [코인브리핑]
- "호주 암호화폐 관심 급증하고 있다... 장애물은 입법 명확성 부족"
- 해시드 '코인투자' 계속된다...IP·비트코인 생태계 주목
- 증권사 먹거리 STO...법제화 불투명 '난감'
- "손해보험, 新위험 보장 확대...가상자산 등 보장"
- 5대 은행 예금서 한달새 13조 이탈...주식·코인으로 '머니무브'
- US PayPal customers will be able to use stablecoin for international payments

Contents

3. Blockchain Financial

- 20조 시장인데 한국, 아무것도 안 해..."지금이 일본보다 먼저 뛰어들 적기"
-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보유량 25만개 돌파
- 비트코인 반감기 4월 20일 예상- 하루 채굴량 450 BTC로 감소
- 코인 불타오르자... 블록체인에 다시 사람·돈 '후끈'
- 가상화폐거래소가 시장감시까지?
- '세계 10위 거래소' 크립토닷컴, 韓 원화마켓 진출 시동
- 벤처투자 나선 하이퍼리즘, '토큰딜 병행' 장점 어필
- 갤럭시디지털, 암호화폐 스타트업 위한 1억 달러 펀드 출시
- 비트코인 주춤하는 사이 스테이블코인 '청신호'...공급량·상승세 지속
-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할 것... 등록 절차 간소화"

4. DaWinKS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9JKKL0sGo>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25_pbO1B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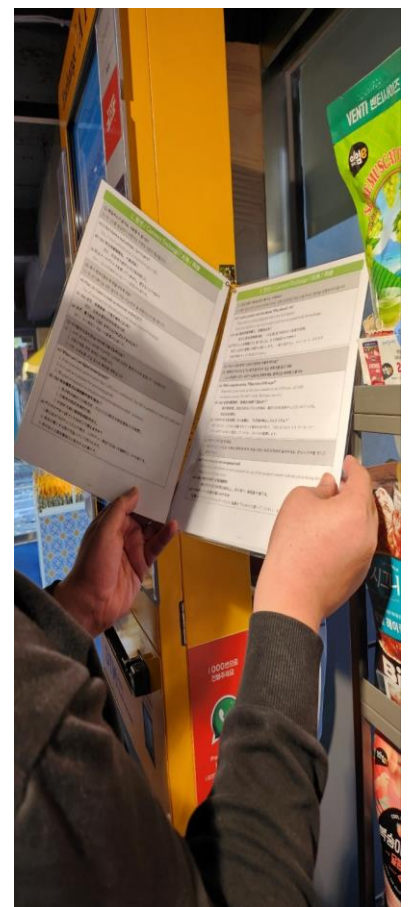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1호 : 이마트24 삼청동점 – 2023.1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8, 팝업스토어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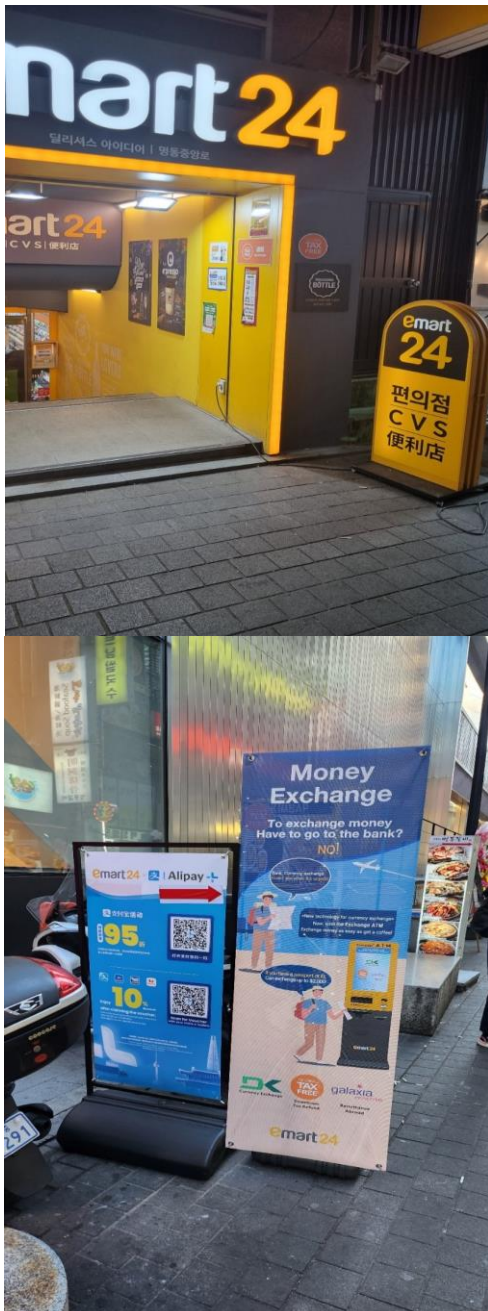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2호 : 이마트24 명동중앙로점 - 2023.12.0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1-7, 지층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3호 : 이마트24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2024.01.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시니어 창업,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핀테크투데이 발행인 임 명 수

현대 경제의 진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가 창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중심의 창업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40세 이상의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글은 시니어 창업의 현황과 이에 대한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시니어 창업가들이 경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시니어 창업의 현황과 도전

현재 창업 시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40세 이상의 창업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이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존재와 금융 기관의 대출 정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은 40세 이상의 인구가 창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사업화하는 데 여러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취업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시니어 창업,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회 부족과 58세 이상의 대출 어려움은 시니어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중 일부다.

시니어 창업의 잠재력

시니어 창업가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인생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에 독특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경험은 특히 시장의 미개척 영역을 탐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시니어 세대의 창업은 또한 사회적 연결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며, 이는 창업 생태계 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책적 지원과 개선 방안

시니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금융 기관이 시니어 창업가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저리의 대출 제공, 보증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니어 세대가 현대의 기술 변화와 시장 동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니어 창업가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시니어 창업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사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1. Company Activity

[임명수 발행인의 핀테크 창업] 시니어 창업,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창업가들은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들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그들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시니어 창업가들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지원적 환경의 조성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과 연대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모든 세대가 창업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다 열린 시장과 사회를 향한 길을 제시한다.

1. Company Activity

사하라 스트리트, RWA기반 디파이 첫 출시...글로벌 RWA 시장공략 본격화

실물 연계 자산 디지털 토큰화...2030년 16조달러대 성장할 RWA시장 적극 공략
인도 투자 클럽 VPM 등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RWA시장의 아마존'이 목표

탈중앙화 실제세계자산(RWA) 플랫폼을 표방하는 사하라스트리트리얼테크(대표 정민호)가 다연 디앤씨(대표 곽동진)와 손잡고 RWA 기반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을 첫 출시했다.

사하라스트리는 이를 계기로 오는 2030년 16조달러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RWA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하라스트리는 최근 RWA 기반 다중 디파이 상품 출시하고 지난 달 두바이 하이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RWA 대형 컨퍼런스 투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RWA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1일 밝혔다.

다연디앤씨는 인도네시아 발리 세미낙 리조트 , 라오스 비엔티안 탕루앙 경제 특구 (SEZ)닉팔도 라구나 골프 레지던트의 주관사로 사하라스트리트와 함께 글로벌 RWA시장 공략에 보조를 맞춘다.

사하라스트리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평창 알펜시아 인근 리조트 &펫, 가평 글램핑 &펫 등과 다연디앤씨의 해외 프로젝트를 묶어 글로벌 RWA를 기반으로 발행한 디파이를 활용, 한번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1. Company Activity

사하라 스트리트, RWA기반 디파이 첫 출시...글로벌 RWA 시장공략 본격화



사하라스트리트의 해외 파트너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사하라스트리트리얼테크 제공

사하라스트리는 이와관련 최근 인도 옴니버스와 투자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옴니버스 CEO 뱀(Bern)은 "14억 인도 전 지역 1천여 곳의 투자 클럽(VPM)과 중국 아프리카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RWA 기반 디파이를 비롯해 사하라의 다양한 RWA상품을 연계한 협력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RWA는 부동산과 미술품, 국채, 저작권 등 접근성이 낮은 유무형의 현실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연동하는 토큰 증권(STO)과 개념은 비슷하다. 다만 증권으로 분류돼 금융당국 규제를 따르는 STO와 달리 RWA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 Company Activity

사하라 스트리트, RWA기반 디파이 첫 출시...글로벌 RWA 시장공략 본격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대를 맞아 유입된 기관 자금이 RWA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RWA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출시하자 국내 상장 관련 코인은 200% 넘게 뛰기도 했다.

코빗리서치센터의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RWA 섹터의 TVL(Total Value Locked, 가상자산 예치총액)은 연초 7억 달러(약 9450억원)에서 연말 57억 달러(약 7조 7000억원)까지 연초 대비 700%가 넘게 상승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관 자금의 유입을 비롯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RWA 섹터에 수요가 맞물리며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16조 달러(약 2경 1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민호 사하라 대표는 "사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RWA를 선정하고 수 년 전부터 파트너십, 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하며 다방면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해왔다"면서 "RWA 기반 디파이 상품을 첫 출시한 만큼 올 한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공략해 'RWA계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 Company Activity

블록체인투데이-오디션벤처스, '웹3.블록체인 사업' 전략적 제휴 체결



BLOCKCHAIN TODAY



VENTURES NETWORK

국내 블록체인 전문 오프라인 매거진 및 온라인 데일리뉴스 매체 '블록체인투데이' (대표 정주필)는 지난 2일 스타트업 전문 홍보 마케팅 기업 '오디션벤처스(대표 서진수)'와 WEB3.0 및 블록체인 사업 관련 전략적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양사가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오디션벤처스는 자사 앱을 통해 블록체인투데이의 영문 뉴스를 제공하며, 블록체인투데이는 오디션벤처스의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진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WEB3.0과 블록체인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 Company Activity

블록체인투데이-오디션벤처스, '웹3·블록체인 사업' 전력적 제휴 체결

양사의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상호 협력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합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양사는 물론,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는 최신 블록체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매체로서, 국내외 독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와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오디션벤처스는 자체 앱을 통하여 에어드랍, 각종 이벤트등으로 받은 리워드를 각 구호단체에 기부를 플랫폼으로 현재 50만 충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동남아, 미주,유럽, 국내 등 다양한 국적의 유저로 구성 되어있다.

1. Company Activity

'리브랜딩' 포블, 이용자가 직접 뽑은 BI 공개... "성공의 키 되겠다"



가상자산 거래소 (주)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강화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BI 리브랜딩을 결정하고, 새로운 로고를 4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암호화폐 윈터를 지나 암호화폐 스프링으로 접어들면서, 포블은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기념해 발표된 십이지신 캐릭터는 포블의 고유한 마스코트로써 매년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며, BI는 거래소의 근본적인 가치와 고객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제작되었다.

새로운 로고 디자인은 지난 3월 27일까지 진행된 투표 이벤트를 통해 확인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로고에는 'F'가 사선으로 배치되어 FOBL을 담았으며, 이 'F'는 중세 시대의 '열쇠(KEY)'를 떠올리게 하여 안전한 보관 및 보안성을 상징한다. 또한 'F' 속 우상향 화살표는 포블이 고객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한다는 약속과 기대를 표현했다. 포블은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 △기대감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블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로고가 상징하는 것처럼, 안전한 거래 환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성공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Money Exchange

환전하러 은행까지 가야 돼?
NO!

은행, 환전소 급할때는 안 보이네!

환전의 신기술
이제, **무인환전기 DTM**으로 커피 뽑듯 간편하게 환전하세요!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2천불까지 환전 가능하대구!

Crypto ATM/ CTM

코인(암호화폐)도 가능하대구?

OK, 정말!
CTM 으로 고고씹~

Money Exchange

To exchange money
Have to go to the bank?
NO!

Bank, Currency exchange I can't see when it's urgent!

New technology for currency exchange
Now, with the **DTM**,
Exchange money as easy as get a coffee!

If you have a passport or ID,
Can exchange up t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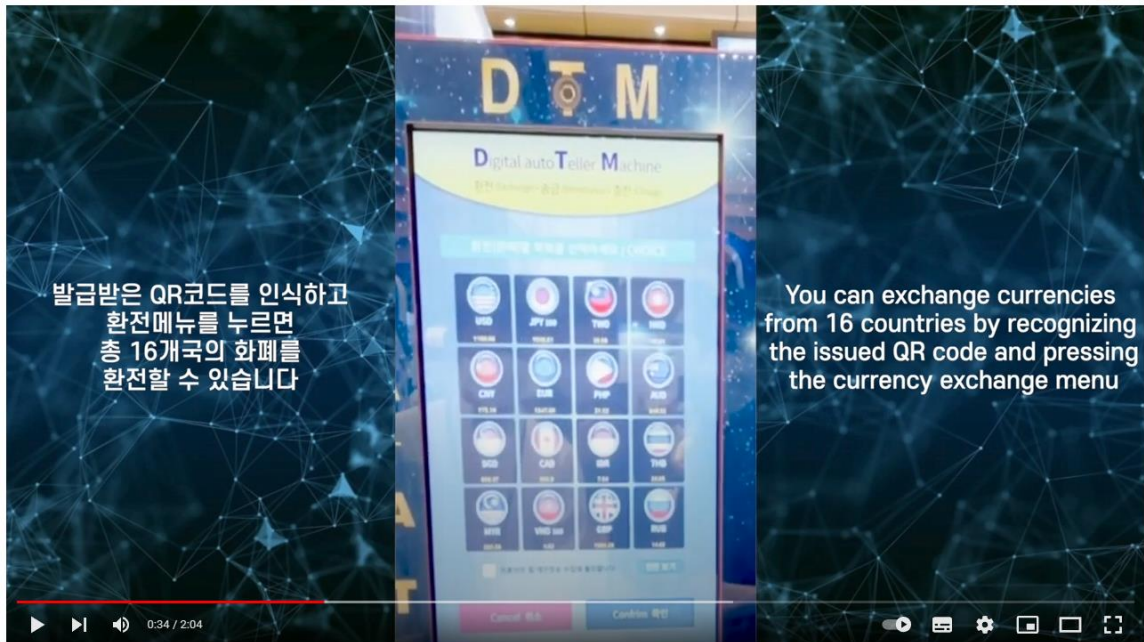
Crypto ATM/ CTM

Coin (cryptocurrency) too
It'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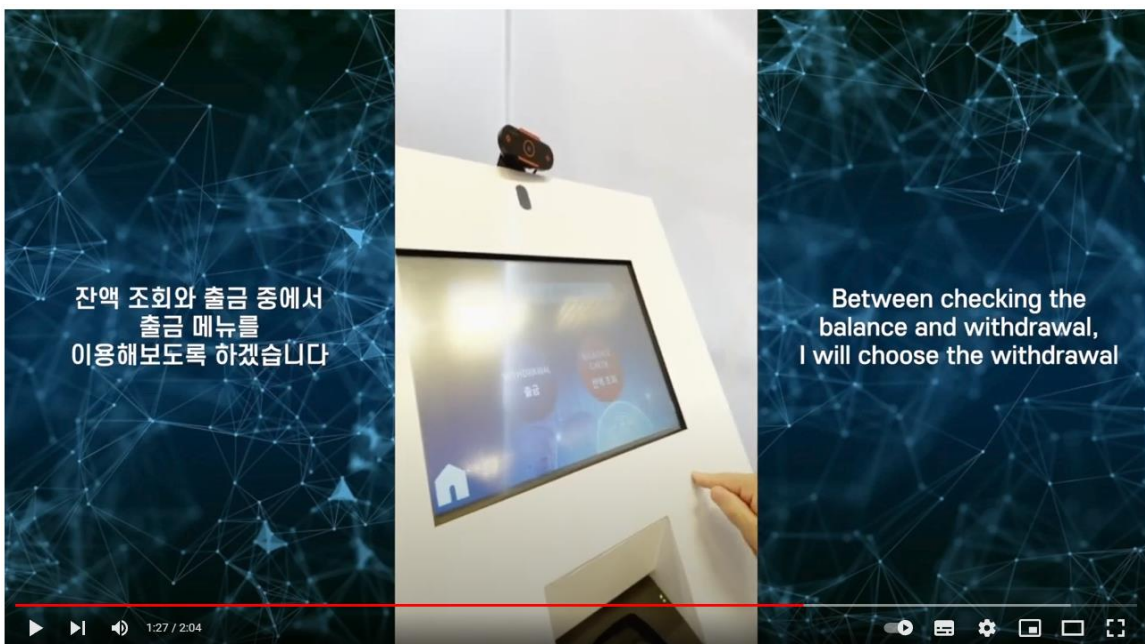
Okay, it's true!
Let's go to CTM!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 디포 CEO "가상자산 ATM, 반감기 이후 급증 예상"



뉴스1에 따르면 비트코인 디포의 브랜든 민츠 최고경영자(CEO)가 "가상자산 ATM 기기 수가 2023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 반감기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인ATM레이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는 가상자산 ATM 기기 수가 3000개 이상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1469개의 기기가 설치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츠 CEO는 "강세장 후반기, 특히 FOMO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가상자산 채택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Global crypto funds rebound with nearly \$900 million in net inflows last week



QUICK TAKE

- **A week after crypto-based investment products registered record outflows of nearly \$1 billion, the financial instruments rebounded significantly with roughly \$900 million in net inflows, according to CoinShares.**

Cumulatively, crypto-based investment vehicles rebounded significantly last week by registering \$862 million in net inflows, according to CoinShares analyst James Butterfill, who posted the data on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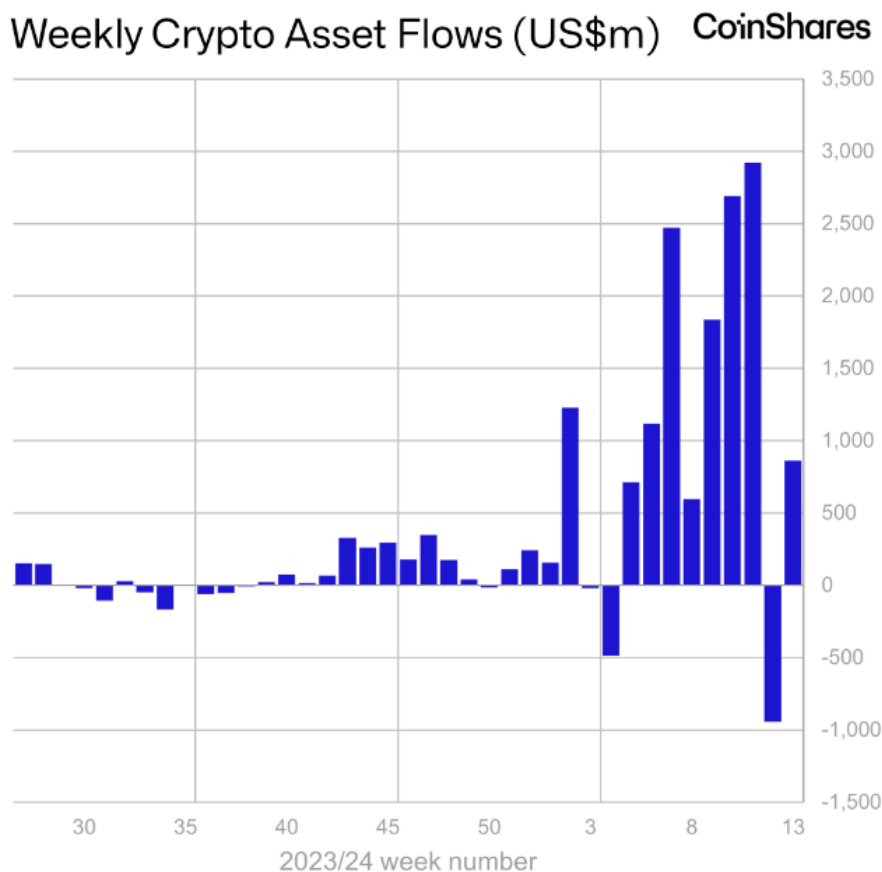
The previous week, funds managed by asset managers such as BlackRock, Fidelity and Grayscale reported record outflows of \$942 million, CoinShares said at the time.

With last week's boost in net inflows and bitcoin's price climbing above \$70,000 for much of last week, the combined assets under management for all the crypto funds tracked by CoinShares hit \$97.9 billion.

https://www.theblock.co/post/285908/global-crypto-funds-rebound-with-nearly-900-million-in-net-inflows-last-week?utm_campaign=website&utm_medium=referral&utm_source=newsletter

2. Blockchain News

Global crypto funds rebound with nearly \$900 million in net inflows last week



Source: Bloomberg, CoinShares, data available as of close 29 March 2024

Capital pouring into bitcoin-related funds continues to make up for the lion's share of activity. BlackRock and Fidelity's spot bitcoin ETFs each registered more than \$600 million of inflows last week, according to CoinShares. Grayscale's spot bitcoin ETF witnessed \$960 million in outflows, bringing its assets under management to about \$35 billion.

The Ark Invest 21 Shares spot bitcoin had an exceptional week, registering more than \$300 million in net inflows. The previous week, the fund — which now has over \$3 b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 brought in a mere \$30 million of capital inflow.

https://www.theblock.co/post/285908/global-crypto-funds-rebound-with-nearly-900-million-in-net-inflows-last-week?utm_campaign=website&utm_medium=referral&utm_source=newsletter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4.3.12 성동훈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코인개미’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 부담은 낮춰주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주주·노동자에게 갈 자금이 투기성 짙은 가상자산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권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놓은 거대 양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추가 연기하는 공약을 내놔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공제한도를 국내주식에 준하는 50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표심 얻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 완화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혜택이 커질 경우 증시와 실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역행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투자로 소득이 생기면 전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될 돈이 주식·실물 투자로 가도록 유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건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투자자 보호책, 취지 좋으나 실효성 의문



지난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을 공약했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불공정행위 처벌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지만 코인 발행 규제 등은 빠져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및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를 추진해 가상자산 유통·발행량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장부)을 통합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표준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상장되는 ‘김치코인’에만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4011142001#c2b>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비트코인 ETF가 자산증식 기회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ETF.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도 추진한다.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가상자산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도 공약에 담았다.

업계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호가가 촘촘해지고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자산증식 차원에서 ISA로 편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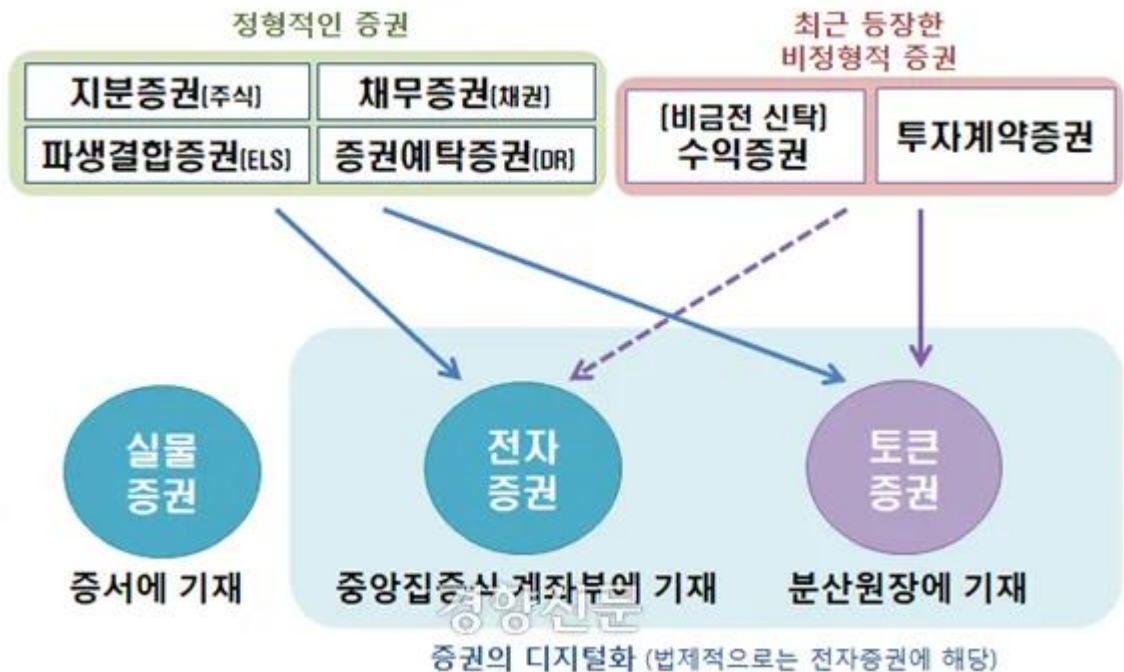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가격 상한가도 없어 파생상품보다 위험한데, (ISA로) 국민들한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순 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품이다보니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국내 운용사들이 가상자산 ETF 출시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뱅가드도 투기성과 변동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홍콩 ELS 사태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선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 개념도. 금융위원회 제공

토큰증권 입법도 거대 양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다. 토큰증권은 미술품과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잘게 쪼개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토큰증권이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ETF 발행”... ‘코인개미’ 겨냥한 선심성 공약 봇물

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반기면서도 토큰증권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수익성이 큰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며 “새로운 상품이다보니 투자자가 겁을 내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투자액 14억 달러 돌파

| 20억 달러 기록한 2022년 9월 이후 최고 수치

지난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18개월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3월 신규 투자액은 총 14억 달러(약 1조 8천858억 원)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억 달러(약 2조 6천94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던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고 수치다.

더블록은 부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시리즈A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한달간 가상자산 시장에 20건 이상의 초기 단계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는 9건의 투자가 이뤄졌던 2월 기록을 크게 상회한다.



비트코인

2. Blockchain News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투자액 14억 달러 돌파

더블록 존 단토니 리서치 디렉터는 "특히 거래 활동은 3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했으며, 벤처 자금은 전월 대비 약 64%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된 총 금액은 지난달 900억 달러(121조 2천300억 원)를 돌파했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토큰증권 기반 신기술 대외사업 ‘총력’

시스템 통합·관리(SI·SM) 사업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워온 중견 중소 IT서비스 기업(SI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다. 기존 SI 사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회사 존속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중견중소 SI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토큰증권(ST) 등이다. 아이티센, DB아이엔씨, 교보DTS, 대신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KG ICT 등 국내 대표 SI 기업들이 주목하는 시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SI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대기업 참여제한’ 관련한 의견들도 함께 조명해 봤다.

클라우드 넘어 AI, 빅데이터 등 기술 확보

SI 기업 상당수는 그룹사의 전산실에서 분사됐다. 그룹사에서 나오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프로젝트의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이는 곧 그룹사가 추구하는 IT 신기술에 따라 SI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SI 기업들은 IT 인프라 환경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변화함에 따라, 그룹사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에 발맞춰 클라우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모기업이 금융 산업군에 속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유통, 물류 산업군이라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SI 기업들은 단순한 클라우드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기업 혹은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이 클라우드든 물론, 빅데이터와 생성형 AI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먼저 교보DTS(구 교보정보통신)의 경우 금융 관련 AI 기술과 보험 및 투자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주목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직접 AI를 개발하고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레이크(DL), 머신러닝옵스(MLOps) 환경 구축 등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보DTS 이덕재 본부장은 “금융 AI, 생성형 AI, 데이터 레이크/ML옵스 기술들을 선택한 이유는 해외 선진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 그룹에서 관련 기술들을 내재화하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AI는 자산운용사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온 퀀트 수학 모델인 ‘알파’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고, 생성형 AI는 고객사들로 하여금 24시간 고객 응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는 올리면서 고객센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DL/ML옵스 구축은 회사 내부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고 AI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역량에 신기술을 결합할 경우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G그룹의 IT 서비스 및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인 KG ICT는 다양한 그룹사들의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고자 AI 물류 자동화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KG ICT 정철환 상무에 따르면, KG그룹에는 제조 기업인 KG스틸, 핀테크 분야 KG모빌리티와 KG이니시스, F&B 분야 할리스, 언론사 이데일리 등 다양한 산업군이 포함돼 있다. 그룹사의 산업군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정철환 상무는 “철강 및 자동차 산업군 KG모빌리티와 KG스틸을 위해 스마트팩토리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AI 기반 물류 자동화에 신사업 가능성을 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그룹사 계열분리가 된 대신정보통신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에 집중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 최현택 대표는 "빅데이터는 정보화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쟁 요건이다. 최근 공공 및 민간에서의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이 부분에 AI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를 위해선 빅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신정보통신은 30년간의 수행하며 쌓아온 공공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자체적인 AI 솔루션의 개발과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매니지드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대내외 연구 개발 및 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룹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견 SI 기업부터, 계열 분리된 SI 기업까지 단순한 클라우드 전환을 넘어 AI, 빅데이터 등 고차원의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기술 기반 대외사업 확대 집중

국내 SI 생태계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 SI 기업들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대외 신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교보DTS는 교보생명 그룹의 다양한 관계사 SW 개발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금융 특화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 시장을 비롯한 엔터프라이즈 기업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챗GPT 외에도 국내외 AI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자산 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AI 어시스턴트 등 금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체 솔루션들을 SaaS로 전환해 제공한다는 사업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교보DTS는 자체 솔루션 SaaS 개발 경험을 토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SaaS 개발 지원 사업'에서 MSP 풀(Pool) 사업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SMB, 스타트업 시장을 겨냥해 클라우드 기반 SaaS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987년 대신그룹의 전산센터로서 시작했으나 현재 완벽하게 계열 분리된 대신정보통신의 경우 그룹사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일찍이 공공분야를 대외사업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했기에 공공분야 IT서비스 매출이 높은 편이다. 대신정보통신은 SI 사업뿐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분야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 최현택 대표는 "우리는 10년 가까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업에 집중해 왔다. 꾸준히 발주되는 사업의 50% 이상을 수주해왔고,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에도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을 수주하며 공공 SI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아이앤씨의 경우 모기업 산업군에 따라 리테일 분야 AI 전환 전문 파트너를 표방하며 대외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 사업 분야는 비전 AI와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이승준 DT추진팀장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유통전시회 'NRF 2024'에서 우리의 AI 기술력이 담긴 비전 AI 기반 셀프계산대 전용 솔루션을 공개했다. 인텔과 기술 협력을 통해 고가의 GPU 대신 CPU 기반으로 기술을 구현해 기능 정확도는 유지하고, 비용은 1/4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솔루션을 토대로 국내·외 리테일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증권 SI 기업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전 AI 기술 기반 매장 공간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매장관리 솔루션'도 국내 주요 리테일 기업과 구축을 논의 중이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도 대외 사업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고객 분석, 수요예측, 물류 최적화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춰 비즈니스 기획부터 AI 모델 개발,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구축,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위한 BI 서비스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공 SI 사업에서 선두권에 있는 아이티센그룹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AI 등 사업 외에 눈에 띄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구축 사업이다. 실제 이미 하나증권의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이며,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운영 사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 선도 SI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이티센그룹 관계자는 "아이티센그룹은 실물 금을 담보로 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담보형 토큰 프로젝트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귀금속 유통시장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16% 수준으로, 일반 소매시장의 온라인 거래 비중 대비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런 이유로 귀금속 시장을 디지털화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그룹의 IT서비스 기업인 DB아이엔씨의 경우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분야 대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대외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DB아이엔씨 관계자는 "여타 그룹사가 대내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DB아이엔씨는 그룹 내 금융권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과 IT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대외 금융고객의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외사업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그룹 관계사 서비스 수준을 재차 고도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IT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보험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나 증권, 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금융권 통합 선두권 SI 기업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주요 고객사인 금융기업에 자체 솔루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내부 기술 및 솔루션 투자와 외부 제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G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인 KG ICT 역시 대외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조분야 SI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KG ICT 정철환 상무는 "그룹사 소속 IT 서비스 기업은 태생적으로 그룹 가족사의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 분야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사업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면서 "KG ICT는 제조업 분야의 DX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제조업 중심의 솔루션과 IT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및 로봇, 물류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대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KG ICT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기에 아직 눈에 띄는 대외 실적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꾸준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올해 구체적인 실적을 거두는 한 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 집중

통상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발팀, 운영팀, 테스트 품질팀 등으로 조직을 구분하는 SI 기업 특성상 설계·구축된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선 이 팀들이 모두 멈출 수밖에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없는 딱딱한 구조였다. 하지만 신기술의 경우 최초의 설계가 최선의 설계가 아니기에 유연한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신기술 중심 대외 신사업을 위해선 조직문화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 SI 기업들 역시 대외 신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힘쓰고 있다.

교보DTS는 신기술 기반 대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SI 및 신기술 조직 융합 등에 힘쓰고 있다. 교보DTS의 신기술 관련 조직에서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내 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적용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SI 기업의 조직 간의 사일로 현상을 피하고자 매월 전사적으로 각 본부에서 진행되는 업무들과 행사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조직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일대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을 유연하게 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고 있다.

아울러 내부의 기존 SI/SM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 스터디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사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신기술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기술교육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신규 인력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 최현택 대표는 "최근 SI 기업들은 딱딱한 조직문화에서 탈피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업계 내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오랜기간 활동해 온 노련한 전문인력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신입 직원들이 많이 보강됐다. 이 같은 젊은 신규 인력들이 조직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신세계아이앤씨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신기술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생성형 AI 기술 기반 사내 구성원 대상 해커톤 대회를 진행했다. 이 대회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와인 추천 서비스'와 동화 스토리와 삽화 이미지를 실시간 생성해 어린이의 독서 습관을 개선하는 '동화 콘텐츠 플랫폼'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AI, 빅데이터 기술 관련 부서 임직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AI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X 2023(DevX 2023)'을 개최했다. 신세계아이앤씨를 포함해 이마트, SSG닷컴, G마켓 등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IT 전문가들의 기술 개발 과정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이승준 DT추진팀장은 “올해에는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한 생성형 AI 기술 기반 해커톤 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테일테크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이 고객 경험에 집중해 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티센그룹도 조직을 개편하는 등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아이티센그룹은 고객의 산업별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인더스트리그룹'과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우드 등 모든 기술역량을 한데 모은 '코어테크놀로지그룹'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고객과 기술이라는 사업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그룹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각 법인이 가진 강점을 모아 그룹 비즈니스 모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티센그룹은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세대 교체를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가속화하고, 기술임원 제도와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B아이엔씨는 '애자일(Agile)한 조직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B아이엔씨 관계자는 "우리는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하고, 애자일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기존의 수직적 직급체계를 수평적인 직급체제로 전환했고, 담당자의 업무 재량권을 확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애자일한 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 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탄력적인 운영과 스마트오피스 구현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사내전용 그룹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 협업툴로 교체해 원활한 사내 소통과 협업 문화의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G ICT 역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문화를 가꾸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이다. 먼저 KG ICT는 한 달에 한 번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각자가 가진 고유의 지식 영역을 전사 동료들과 공유하는 행사다. 사내 세미나의 주제는 임직원이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어 자신의 취미에서부터 여행, 맛집, 요리 등의 주제에서부터 인공지능, 방법론 등 IT 관련 기술 분야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외국의 IT전문 리서치 기관부터 국내 선두 솔루션 기업 등이 KG ICT와 함께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기술 확보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기술이나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룩한 임직원에게 대해 탐견 호칭을 부여하고 시상하고 있다. KG ICT 정철환 상무는 "탐견은 영화로 유명하지만, 미국 해군 엘리트 조종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5명의 탐견이 임명됐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이룬 업무 실적에 대한 성취감을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높이고 임직원들에게 동기 부여의 기회도 마련했다. 그리고 해마다 5월에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 결속을 다지고 신규로 입사한 임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 핵심 비즈니스 및 솔루션

교보DTS

교보DTS는 금융 SW 개발 사업 외에도 금융 특화
신기술 관련 사업 확장 및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DTS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을 개발했다. 교보DTS의 CMP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자원 모니터링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관리 △클라우드 자원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자원 보안 상태 관리 등
4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
비즈니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보DT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핵심 기술인 쿠버네티스 등의 오픈소스 기술을 갖춘 PaaS 솔루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하고 이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비즈니스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보DTS의 AI 사업은 △AI 자산관리 △상담지원 생성형 AI △DL/ML옵스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AI 자산관리의 경우 자산운용을 돕는 금융 AI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81>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증권 SI 기업들

교보 DTS가 올해 2월 AI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출시했고, 현재는 교보생명 퇴직연금과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다.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약관 GPT', 텔레마케터들이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상담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TM지원 GPT', 사내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S GPT'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교보DTS의 금융 AI 솔루션 RA의 특징 (출처: 교보DTS)

교보 DTS가 올해 2월 AI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출시했고, 현재는 교보생명 퇴직연금과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다.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약관 GPT', 텔레마케터들이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상담 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TM지원 GPT', 사내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S GPT'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대신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은 공공 I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SI 기업이다. 전산장비 및 기반 환경에 대한

신규 구축, 유지관리 등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안장비 및 솔루션 공급, 클라우드 관리, 산업용 PDA 개발 및 판매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다양한 신기술을 확보하고자 인수합병이 아닌 자체적인 연구 개발과 협력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신정보통신 최현택 대표는 "직접적인 개발·운용을 목표로 기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수합병을 할 경우 당장 필요한 기술력을 빠른 시일에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자체적인 역량 보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정보통신은 자체적으로 직접 기술 스터디와 활용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정보통신은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도 만들어 내고 있다. 최현택 대표는 "현재 대신정보통신은 NIPA와 협력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울증 진단서비스 및 육아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운용 중에 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클라우드 컴퓨팅, 매니지드 서비스 인증을 보유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환경 및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디지털 서비스	Cloud Consulting	Cloud Migration	IaaS/PaaS/SaaS 구축	Service 구축
	Cloud 도입(L2C, C2C)을 위한 진단/영향도 분석/이행방안 수립 컨설팅	- Cloud 전환에 따른 Risk/Issue 도출 및 방안 수립 - 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및 업무 전환	- Private/Public Cloud 인프라 구축 - IaaS 전환 후 24x365 고객지원	- Cloud 환경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 System Integration 사업
디지털서비스 기술	Cloud, AI, Big-Data, PaaS, Security			
지적자산	방법론(컨설팅, 마이그레이션, 구축 등), 사례, 프로젝트 산출물, 구축플랫폼, CMMI Level3 등			
Cloud Managed Provider(MSP)	DS-CLOUD, Public(KT Cloud, NHN Cloud, Naver Cloud, AWS 등)/Private Cloud			

대신정보통신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비스 개요 (출처: 대신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은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고객은 서울특별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이 있다.

2. Blockchai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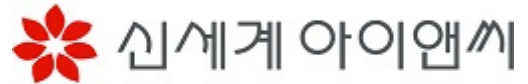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조성한다. 나아가 기업 수요에 맞춰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기반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는 인공지능 전환(AI) 핵심 파트너로서 대외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전면에 내세운 기술은 생성형

AI와 비전 AI(Vision AI)다. 비전 AI는 이미지나 영상으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특정 객체를 감지·추적할 수 있다.

먼저 신세계아이앤씨는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을 연내 출시해 신세계그룹 등 국내외 주요 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출시할 생성형 AI 솔루션은 고객 특화 프라이빗 LLM과 기업 내부 정보 검색 시스템을 실시간 결합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이빗 LLM과 RAG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솔루션의 경우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측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고 기업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세계아이앤씨는 '셀프계산대 전용 솔루션'과 '매장관리 솔루션' 등 비전 AI 솔루션 비즈니스도 확대한다. 회사는 AI 기술 수요가 높아진 동남아시아에서 올해

2. Blockchain News

[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업들

상반기 중 셀프계산대 전용 솔루션의 기술 테스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 독일 등 유럽시장에서는 매장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스파로스 AI Vision 기반의 딥러닝을 바탕으로
리테일 산업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상품 인식(Product Detection/Recognition)
- 고객 동선 추적(Customer Tracking)
- 고객 행동 인식(Customer Activity Recognition)
- 센서 퓨전(Sensor Fusion)



신세계아이앤씨 이승준 DT추진팀장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생성형 AI와 같은 AI 기술 역량에 리테일테크 비즈니스 노하우를 결합해 기업의 특성에 맞춘 AX 전략 수립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도 쓸모가 생기기 시작했다"...레이어2·NFT 활성화 [코인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실용성이 전혀 없는 비트코인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비트코인 비판의 가장 큰 근거로는 '실용성'이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실용성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NFT 거래, 이더리움 넘어서

1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비트코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량(자전거래 제외)은 4억7615만달러로 전월 대비 30.88% 급증했다.

NFT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이더리움에서는 26.44% 감소한 4억7565만달러에 그치며, 비트코인 NFT에 거래량이 역전당했다.

전체 NFT 시장에서 이더리움 NFT 거래량은 434억달러로, 비트코인 NFT 거래량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NFT의 거래량이 근소하게 역전된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401145822490>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도 쓸모가 생기기 시작했다"...레이어2·NFT 활성화 [코인브리핑]

1세대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결제 및 송금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해당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트코인 최소단위인 '사토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오디널스'라는 토큰이 탄생했고,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NFT 등이 구현되기 시작했다.

디스프레드 정금산 공동대표는 "지난해 말 오디널스의 급속한 채택을 통해 비트코인은 계약(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없이 솔라나를 능가하는 가장 큰 NFT 플랫폼이 됐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비트코인 NFT의 판매량이 50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이하고자 등장한 '이더리움 레이어2'처럼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코인이 '스택스(STX)'다. 스마트 컨트랙트 등이 불가능했던 비트코인에 이를 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스택스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1달러 수준이던 스택스의 가격은 현재 3.6달러로 올라섰다.

■ "또 다른 가능성" vs "순수성 훼손"

이더리움 레이어2의 등장으로 이더리움의 속도와 성능, 확정성이 높아진 것처럼 오디널스와 비트코인 레이어2가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블록체인투자사 스파르탄그룹에 따르면 2025년까지 비트코인 레이어2의 시가총액은 240억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비트코인은 본래 오픈소스여서 비트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등 비트코인 전반의 수요가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의 보상 감소가 예상되는 터라 오디널스를 통한 온체인 거래수수료 증가가 이를 메워줄 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40401145822490>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도 쓸모가 생기기 시작했다"...레이어2·NFT 활성화 [코인브리핑]

정금산 대표도 "스택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가 잇따라 출시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반감기 전 스택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확장성과 다양성(유틸리티)을 개선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의론도 여전하다. 비트코인 기반 토큰이 상당수가 'میم코인'이고, 비트코인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빗 김민승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활성화는 인스크립션, BRC-20 등 비트코인 기반 기술이나 토큰, 그 자체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격 견인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생태계 성장은 환영할 일이나 일각에서는 블록 공간에 '순수하지 않은' 것을 추가하는데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센터장은 "비트코인 블록 공간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사례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레이어2에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 Blockchain News

"호주 암호화폐 관심 급증하고 있다... 장애물은 입법 명확성 부족"



(출처=X/jdesmondmiller) 크라켄 호주 CEO

"최근 암호화폐 강세장이 호주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입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호주는 글로벌 암호화폐 수요의 전환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라켄 호주(Kraken Australia)의 CEO인 조나단 밀러(Jonathan Miller)는 멜버른에서 열린 포물러 원 그랑프리에서 진행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주의 기관 암호화폐 수요는 뒤쳐져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올바른 정책 조치가 이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에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위치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밀러는 미국에서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2. Blockchain News

"호주 암호화폐 관심 급증하고 있다... 장애물은 입법 명확성 부족"

비트코인에게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기관의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것이 아직 호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블랙록의 1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토큰화 펀드 추진, 스테이블코인 채택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밀러는 호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소매 투자자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호주 암호화폐 채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 명확성 부족과 상대적으로 느린 입법 진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Blockchain News

해시드 '코인투자' 계속된다...IP·비트코인 생태계 주목

"안전지대를 벗어나 불편한 선택을 하라"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지난달 한 대학교의 졸업 축하에서 위와 같이 했다. 주류를 따라 예측 가능한 도전을 하면 안정감을 주지만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해시드도 도전의 하나였다. 가상자산 투자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 해시드를 창업했다. 제도 미비에도 불구하고 해시드는 100여개 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VC로 성장했다.

해시드의 투자 규모와 형태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과거 이더리움, 앱토스, 유가랩스 등 메인넷 중심 빅딜에 투자했다면 최근에는 메인넷 아래에서 실사용 프로젝트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주목 중이다.

◇작년, 시드·시리즈A 단계 기업에 13건 코인투자 집행

해시드는 여타 벤처캐피탈(VC)와 달리 투자 성과가 외부 공개되지 않는다. 재무제표를 봐도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독특한 투자 방식 때문이다. 해시드는 법인이 아닌 파트너 개인 명의로 신생 가상자산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코인을 받는다.

법인은 피투자대상에 대한 리서치와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해시드의 매출 대부분은 파트너로부터 받은 리서치 용역 대가다. 2022년 해시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이사로부터 받은 매출은 47억4155만원이다. 파트너들이 99%에 달하는 매출을 책임진다.

투자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파트너들 개인 명의로 보관 중이다. 이에 주식공시에도

2. Blockchain News

해시드 '코인투자' 계속된다...IP·비트코인 생태계 주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무형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영업외손익 등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해시드는 지난해 2023년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1년동안 13개 기업에 89억원을 출자했다. 대부분 시드~시리즈A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이었다. 해시드벤처스를 통한 에쿼티 투자는 16개 기업에 279억원을 집행했다.



2. Blockchain News

해시드 '코인투자' 계속된다...IP·비트코인 생태계 주목

◇올해 비트코인 디파이·NFT 생태계 확장 '기대'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서 해시드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메인넷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위주였다면 최근엔 실사용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 분야로 시각을 확대한다. 웹툰, 게임, 영화, 엔터 등 IP에 블록체인을 입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는다. 콘텐츠는 해시드가 매우 관심 있게 보는 분야다. 이미 엔터사 모드하우스에 투자해 웹3 기반 어이돌을 데뷔시켰다. 팬들이 직접 유닛 조합, 타이틀곡 선정 등에 참여하는 걸그룹 '트리플에스'는 작년 마마(MAMA)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성과를 냈다.

해시드는 온라인에서 IP 파생 콘텐츠가 무수히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런 상황 속 사용자 추적과 저작권 증명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IP 시장의 전례 없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IP를 활용하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투자할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들에도 관심을 둔다. 오디널스의 흥행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탄생한지 15년이된 비트코인은 느린 거래처리속도 등 여러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비트코인 하위에서 탈중앙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프로젝트는 나올 수 없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프로토콜 오디널스는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전송이 가능한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소수 단위인 사토시(0.00000001)에 데이터를 새겨 넣어 블록체인에 정보를 올린다. 이 방식으로 비트코인 기반 NFT 발행을 가능케했다.

2. Blockchain News

해시드 '코인투자' 계속된다...IP·비트코인 생태계 주목

해시드는 2020년 이더리움 생태계가 디파이와 NFT 기반으로 성장한 것처럼 올해는 비트코인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 애그리게이터 등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성장 여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초석을 만들 프로젝트부터 레이어2, 레이어3(앱체인) 등 블록체인 인프라도 활발히 발굴, 리서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증권사 먹거리 STO...법제화 불투명 '난감'

유진투자·하나·IBK투자증권 등 MTS 내 STO 관련 항목 구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5월에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토큰증권(STO)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법제화도 불투명해지면서 증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MTS 내 STO 관련 항목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 2028년 233조, 2030년 367조원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유무형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토큰으로 쪼개 만든 증권으로 금융 산업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실제 구현 테스트를 마친 상태로 STO의 법제화만 이뤄지면 MTS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 역시 MTS 내 조각투자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128>

2. Blockchain News

증권사 먹거리 STO...법제화 불투명 '난감'

IBK투자증권도 법안 통과 상황과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MTS에 STO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은 STO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비스 개발과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무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TO 거래를 위한 거래소 설립과 STO 거래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증권이 아니라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점이다. 새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이 발의돼 논의를 거쳐야 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빠른 시일 안에 토큰증권 제도가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 개정 지연에 따라 STO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해 연말보다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자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와 조각투자 플랫폼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신탁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신탁수익증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향후 매각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배당 받을 수 있고 수익증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다.

2. Blockchain News

증권사 먹거리 STO...법제화 불투명 '난감'

그러나 부동산 전반에 대한 시장 심리가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매매하는 것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성도 시들해진 게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과 시행세칙이 확정돼야 사업 전략도 다각도로 맞출 수 있는데 현재는 어렵고 일단 총선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2. Blockchain News

"손해보험, 新위험 보장 확대...가상자산 등 보장"

이병래 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손해보험협회가 새롭게 등장한 기술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적극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날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병래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가상자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후 등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 Blockchain News

"손해보험, 新위험 보장 확대...가상자산 등 보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킹·전산 장애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개발 중이다.

또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회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 중과실(신분증 제공,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일 경우 보험이 면책됐으나 특약을 통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 배상 기준에 맞춰 피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 개입 없이 일반 환경서 시스템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보험제도 정비도 나선다. 원인 불명의 사고나 해킹은 물론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해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2. Blockchain News

5대 은행 예금서 한달새 13조 이탈...주식·코인으로 '머니무브'

적금도 2조원 가까이 감소
금리 2~3%대로 매력 '뚝'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 창구 간판. ©연합뉴스

국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이자율이 낮아진 가운데 주식·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한 자금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3761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8740억원(1.5%)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도 31조3727억원으로 1조8478억원(5.6%) 감소했다.

우선 은행 예금에 묶여있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한 배경엔 낮아진 이자율이 자리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대까지 치솟았던 예금 이자율은 2~3%대까지 떨어졌다.

2. Blockchain News

5대 은행 예금서 한달새 13조 이탈...주식·코인으로 '머니무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지난 4일 기준 연 3.45~3.55%다. 이는 각종 우대금리를 포함한 수준으로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연 2%대의 예금도 적잖다.

반면 올해 들어 주식·가상자산 시장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연초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400대와 790대까지 밀렸다. 하지만 인공지능(AI)와 반도체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약 2년 만에 2700대를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90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연초 5000만원대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1억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앞으로도 예·적금에 예치돼 있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경우 갈수록 수신금리 메리트는 떨어지고, 주식·가상자산과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일에 59조629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 2일(61조6321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지난 2일 기준 19조5322억원으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17조5371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가량 늘었다.

2. Blockchain News

US PayPal customers will be able to use stablecoin for international payments



QUICK TAKE

- **PayPal said it's rolling out a new service that allows U.S. clients to send cross-border money transfers using the company's PYUSD stablecoin.**
- **U.S. users of the company's international payments service, Xoom, can convert PYUSD to USD and then send money to "recipients in approximately 160 countries" without being charged transaction fees.**

Silicon Valley-based payments giant PayPal is again looking to expand the use of its PYUSD stablecoin.

The company announced that starting Thursday, U.S. clients will be able to send international money transfers using the company's PYUSD stablecoin. Through its cross-border payments service, Xoom, U.S. customers can now convert PYUSD to USD and then send money to "recipients in approximately 160 countries" without being charged transaction fees, PayPal said in a statement.

<https://www.theblock.co/post/286513/us-paypal-customers-will-be-able-to-use-stablecoin-for-international-payments>

2. Blockchain News

US PayPal customers will be able to use stablecoin for international payments

PayPal appears confident the market will embrace more cost-effective ways to send international money transfers. In its statement, it cited a World Bank report that said the "global average cost of sending \$200 is just over 6%."

The fintech company is also simultaneously trying to increase the use of its stablecoin, launched last year, while establishing itself as a trusted organization in digital assets. When it launched its stablecoin PayPal said the world is shifting towards greater use of cryptocurrencies.

"Enabling U.S. users of Xoom the option to fund cross-border money transfers using PYUSD builds on our goal of driving mainstream adoption of cryptocurrencies," PayPal's Jose Fernandez da Ponte said in a statement. Da Ponte is PayPal's SVP of the blockchain, cryptocurrency, and digital currency group.

PayPal's announcement also comes as the stablecoin market may be heating up. Ripple announced on Thursday it was launching a stablecoin designed primarily for enterprise clients. In its statement, Ripple said the stablecoin market could rise to \$2.8 trillion by 2028.

Currently, Tether's USDT and Circle's USDC stablecoins are the clear leaders in terms of supply, according to The Block Data Dashboard.

3. Blockchain Financial

20조 시장인데 한국, 아무것도 안 해..."지금이 일본보다 먼저 뛰어들 적기"

예술형 주화 7.5조→19.9조 성장
금 등 소재로 만든 중앙은행 보증화폐
최대 발행국 미국, 중국 아시아 유일
재정수입 효과 커 오스트리아 1300억
한경협 "K-컬처 살려 적극 시장 진출해야"

미국 (이글)	중국 (판다)	캐나다 (메이플)	오스트리아 (필하모닉)	호주 (캥거루)	호주 (12간지)
					

최근 3년새 예술형 주화 시장이 3배 가까이 커지며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한국의 참여는 전무해, 전후방 사업 및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글로벌 예술형 주화 시장은 2019년 7조5000억원에서 2022년 19조9000억원으로 3년 새 2.7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술형 주화란 非유통주화로 자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은 소재를 사용해 발행하며 중앙은행이 그 순도와 무게를 보증하는 법정화폐이다. 귀금속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지며 매년 동일한 주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액면가격에 판매되며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기념화폐와는 구분된다.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등이 주요 발행국이다.

주요국은 자국의 역사·문화·예술적 상징물을 반영한 예술형 주화를 발행해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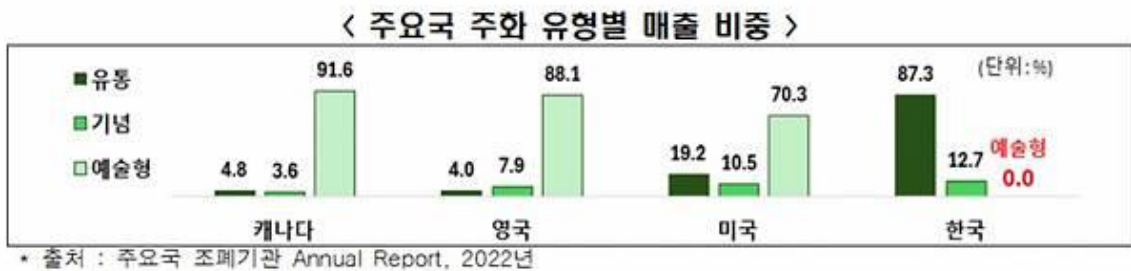
<https://v.daum.net/v/20240401060131054>

3. Blockchain Financial

20조 시장인데 한국, 아무것도 안 해..."지금도 일본보다 먼저 뛰어들 적기"

해외에 판매하며 국가 문화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글', 중국의 '판다', 캐나다의 '메이플', 오스트리아의 '필하모닉', 호주의 '캥거루'가 대표적이다.

2022년 예술형 주화 발행규모는 미국이 4조9000억원으로 최대였다. 전체 주화 매출 중 예술형 비중은 2022년 기준 캐나다 91.6%, 영국 88.1%, 미국 70.3%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지 않는 한국은 유통주화 비중이 87.3%로 주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디지털화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로 유통주화가 사라지는 추세 속에서, 한국도 신산업 발굴 차원에서 예술형 주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해외에서 동양을 테마로 한 예술형 주화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판다' 위주로 발행하는 중국을 빼면 아시아에서는 발행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非아시아권인 호주가 2008년~2019년 '십이간지' 예술형 주화를 발행했고, 지난해 계묘년 '토끼' 주화를 발행해 전세계에 판매하며 관련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한경협은 "서양 중심의 주화 시장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희소성이 높아 신규 수요를 끌어낼 수 있고,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 "일본, 아세안이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예술형 주화는 밸류체인 단계별로 다양한 산업이 연관돼 있다. 먼저, '원자재 조달' 단계는 귀금속 정제련 산업과, 재료가격 리스크 헷지를 위한 금융상품 등의

3. Blockchain Financial

20조 시장인데 한국, 아무것도 안 해..."지금이 일본보다 먼저 뛰어들 적기"

발달을 가져온다. '주화 제조' 단계에서는 3D 조각, 금형제작, 제조용 기계장비·부품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며,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전문유통사의 발달과 2차 소매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유통 생태계가 조성된다.

실제 미국의 주화 유통 부문의 경우, 조폐국이 예술형 주화를 수출하기 위해 전문유통업체를 지정해 판매 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APMEX, A-Mark, Fidelitrade, MTB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활동 중이다.

주화를 발행하는 조폐국이 거둔 재정적 수익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왕립조폐국이 창출한 연간 850억원의 수익을 재무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조폐국이 벌어들인 연간 1300억원의 수익을 중앙은행에 귀속시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술형 주화 발행 시, 국민들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 국가차원의 외환 위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중앙은행이 금을 2000t 이상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5t으로 세계 36위에 그친다.

예술형 주화는 가격이 귀금속 시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치저장 및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독특한 주화 디자인으로 수집용으로도 인기가 있다. 특히, 예술형 주화는 발행 당국이 중량과 순도를 보증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화를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쉽게 거래된다.

3. Blockchain Financial

20조 시장인데 한국, 아무것도 안 해..."지금이 일본보다 먼저 뛰어들 적기"

예술형 주화를 발행하지 않는 한국은 국민들의 금 등 안전자산 투자, 주화 수집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주화 수입규모는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349억원에 달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K-팝, K-드라마 등 K-컬처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으로, 국가브랜드와 문화적 강점을 살려 예술형 주화 발행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보유량 25만개 돌파



뉴스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1주 만에 25만비트코인을 넘어섰다.

피델리티 FBTC는 14만3000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운용자산(AUM)이 100억달러(13조4800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그레이스케일 GBTC 보유량은 같은 기간 61만9000비트코인에서 약 34만비트코인으로 45% 줄었다.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반감기 4월 20일 예상- 하루 채굴량 450 BTC로 감소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일자가 4월 20일로 예상되고 있다.

와처그루는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 페이지를 통해 예상 반감기 일시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작성 시점 현재 블록은 837084블록으로 반감기인 84만 블록이 형성되기까지 2916개 블록이 남아있다.

통상 10분에 블록이 한개씩 형성되도록 돼있으나 그림에서 보듯이 807084 블록은 5분만에 채굴됐고 837082블록은 25분이 걸리는 등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다.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반감기 4월 20일 예상- 하루 채굴량 450 BTC로 감소



비트코인은 블록형성당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데 현재 블록당 6.25 BTC가 지급되고 있다. 반감기가 지나면 보상이 3.125BTC로 줄어든다.

비트코인(BTC) 반감기 예정표					BLOCK MEDIA	
반감기	블록당 보상	채굴량	총 채굴량	완료 비중		
첫 채굴기	50	10500000	10500000	50.00%		
2012년	25	5250000	15750000	75.00%		
2016년	12.5	2625000	18375000	87.50%		
2020년	6.25	1312500	19687500	93.75%		
2024년	3.125	656250	20343750	96.88%		
2028년	1.5625	328125	20671875	98.44%		
2032년	0.7812	164062.5	20835937.5	99.22%		
2036년	0.3906	82031.25	20917968.75	99.61%		
2040년	0.1953	41015.625	20958984.38	99.80%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반감기 4월 20일 예상- 하루 채굴량 450 BTC로 감소

이번 반감기가 끝나는 4월 20일에는 비트코인은 1968만 7500 BTC가 채굴돼 총발행량 2100만개의 93.75%가 채굴된다.

다음 반감기가 끝나는 2028년에는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중 98.44%가 공급되고 불과 33만 개 정도만 남게된다.

3. Blockchain Financial

코인 불타오르자... 블록체인에 다시 사람·돈 '후끈'

‘가상화폐의 기반’ 블록체인 활기



그래픽=양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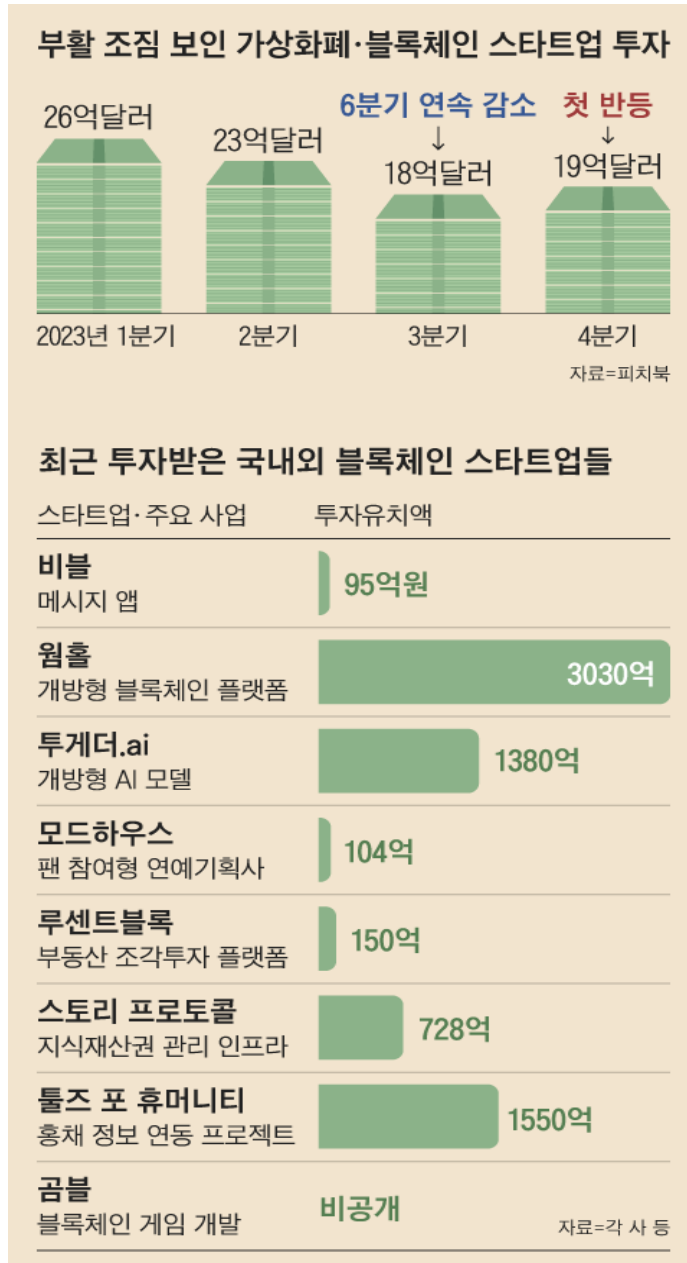
직장인 백모(35)씨는 얼마 전부터 출퇴근할 때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걸음 수에 따라 가상 화폐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리워드 앱'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보통 하루에 100~200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3만 포인트면 0.00021개의 비트코인(약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백씨는 "가상 화폐 가격이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환전 포인트를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다. 백씨가 이용 중인 앱(비트버니)은 스타트업 '업라이즈'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것으로, 현재는 하루 이용자 수가 12만명에 달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고, 가상 자산 시장의 추가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가상 자산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의 가치가 뛰면서 관련 기술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벤처 자금 조달 규모는 19억달러(약 2조5300억원)로 직전 분기 대비

3. Blockchain Financial

코인 불타오르자... 블록체인에 다시 사람·돈 '후끈'

2.5% 늘어났다. 7분기 만에 처음 반등한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2010년대 중후반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크게 주목 받았지만, 2020년대 들어 관심이 시들해졌다.



그래픽=양인성

3. Blockchain Financial

코인 불타오르자... 블록체인에 다시 사람·돈 '후끈'

◇부활 조짐 보인 블록체인 산업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투자 업계다. 스타트업 전문 분석 기관인 피치북은 "부동산, 주식 등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한 금융 및 기술 솔루션이 인기 투자처"라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가상 화폐·블록체인 부문에서 가장 큰 투자를 유치한 곳은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 '웜홀'이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외부로부터 3000억원을 투자 받았다. 국내에선 상업용 부동산 지분을 주식처럼 쪼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150억원을 유치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역시 블록체인 산업 부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구동을 위한 컴퓨팅 자원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표적 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세계 곳곳의 유휴 컴퓨팅 자원을 모아 원격 지원하는 클라우드(가상 서버) 기술을 개발한 '투게더.ai'는 작년 11월 약 138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에 올랐다. 오픈 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주도한 '월드코인 프로젝트' 역시 대표적인 AI 관련 블록체인 기술이다. 홍채 정보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해 AI와 인간의 구분이 힘든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인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처럼 쓰겠다는 사업은 벌써 37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블록체인 관련 지적재산권 사업 관심

다만 투자 업계에선 가상 자산 상승세가 끝나면, 블록체인 산업 역시 다시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블록체인 기술 보급의 선봉장이라 여겨졌던 NFT (대체불가능 토큰)와 디파이(블록체인 금융상품) 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한 탓이 크다. 최근 투자자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코인 불타오르자... 블록체인에 다시 사람·돈 '후끈'

블록체인 전문 투자 기업 해시드 관계자는 “요즘 눈여겨보는 쪽은 아이돌·애니메이션·게임 등 지식재산권(IP)과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분야”라며 “콘텐츠 분야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큰 만큼 블록체인 기술 보급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블록체인과 IP를 결합한 사업은 요즘 투자 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인 스타트업 ‘스토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로 IP 소유권을 관리하는 사업 모델로 작년 9월 약 730억원을 투자받았다. 국내에선 디지털 앨범 구매 팬에게 소속 가수의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투표용 가상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팬 참여를 확대한 블록체인 연예기획사 ‘모드하우스’가 약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밖에 가상 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해 해외 서비스 중인 ‘위메이드’와 ‘곰블’ 등 IP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블록체인 게임이 소비자 킬러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서로 줄줄이 연결된(체인·chain) 조각들(블록·block)로 담은 데이터를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뜻한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반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가상 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꼽힌다.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화폐거래소가 시장감시까지?

이상거래 기준·절차 공개 거절
시행 앞두고 시스템 미구축 등
전문가 "불신... 별도 기구 필요"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한 것을 두고 이해 상충 문제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각 거래소가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이를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제정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감시 기능을 부여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세조종 등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화폐거래소가 시장감시까지?

이상거래가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같은 세부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거래감시 기능을 갖춘 한국거래소 등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관련 기준과 감시 절차 등의 프로세스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표된 기준만 피하는 또 다른 이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해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위 거래소 빗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2개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새로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장 검증도 제대로 거치기 어려워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당국이 제정한 업무규정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절차를 모두 거래소가 마련하도록 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 통합돼 있는 주식시장의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 사 별로 상장과 폐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이번 감시 관련 세부절차도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감시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나 체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래소 규모별 감시 능력도 천차만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화폐거래소가 시장감시까지?

1일 기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기업의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이 5조원에 달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당국이 사실상 감시 기능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코인을 발행하는 곳과 거래소간 관계에 따른 이해 상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거래소 수익의 90% 이상이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이를 위해 유망 코인을 두고 영업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거래소가 과연 해당 코인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의문이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셈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거래소 역시 증권사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지만 종목별, 투자자별 거래량과 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도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는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의 현물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감시기능을 강화했고, EU도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고, 발행시장공시규제와 유통시장공시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등 제3의 기관이 참여한 별도의 감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감시 기능은 잘해야 본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책임이 따르는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어 당국이 이를 회피하는 것일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당국의 방침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감독원' 등 공식적인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세계 10위 거래소’ 암호화폐, 韓 원화마켓 진출 시동

크립토닷컴, 29일 코인마켓 거래 서비스 시작

이용자 8000만명·누적 거래 10조달러

“원화마켓 진출 준비”...당국은 해외 사업자 막아



크립토닷컴의 에릭 안지아니 CEO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크립토닷컴 제공

세계 10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이달 말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이며, 국내 사업을 시작한다. 크립토닷컴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열어 두나무, 빗썸 등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금융 당국이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출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사업자 승인을 얻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크립토닷컴의 에릭 안지아니 최고경영자(CEO)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 크립토닷컴 메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비트코인을 충전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마켓 거래 서비스로, 150여개의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사고팔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4/02/YKHKLHTPCNGDJOH3RDRWRRJXL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Blockchain Financial

‘세계 10위 거래소’ 암호화폐, 韓 원화마켓 진출 시동

크립토닷컴은 지난 2021년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오케이비트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다. 오케이비트가 보유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을 이용해 국내에서 크립토닷컴 브랜드로 코인마켓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립토닷컴은 지난 2016년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80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10위 거래소로 설립 후 누적 거래 규모는 10조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라인, 스튜디오드래곤 등 여러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거래소는 특히 미 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와 프랑스 축구 리그의 파리생제르망(PSG) 등 유명 스포츠 구단과 밀접하게 협업하는 블록체인 사업자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이 거래소가 소유한 ‘크립토닷컴 아레나’다.

크립토닷컴은 일단 코인마켓 거래소로 국내 사업을 시작하지만, 향후 원화마켓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코리아 대표는 “일단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라는 인식을 얻는 게 1차 목표”라면서 “원화마켓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크립토닷컴의 원화마켓 거래소 시장 진출이 짧은 기간 안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가 해외 사업자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막아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자금 세탁이나 불법 송금 등의 위험도 크다는 이유로 국내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세계 10위 거래소' 암호화폐, 韓 원화마켓 진출 시동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거래 플랫폼인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해 국내 진출을 시도했지만, 금융위는 지금껏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의 경우 바이낸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이낸스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을 도움 혐의로 43억달러(약 5조82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지만, 암호화폐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만큼 엄격한 잣대를 갖고 국내 진출을 막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해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국내 진출을 시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껏 사업자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자오창평 바이낸스 대표이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디지털금융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국내 1위 사업자인 두나무의 독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이 암호화폐의 진출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의 이유로 꼽힌다. 현재 두나무의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의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2위 사업자인 빗썸의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하며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등 소형 거래소는 한 자릿수의 점유율에 허덕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해외 거래소인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경우 업비트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거래소 간 가격 경쟁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4/02/YKHKLHTPCNGDJOH3RDRWRRJXL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Blockchain Financial

'세계 10위 거래소' 암호화폐, 韓 원화마켓 진출 시동

크립토닷컴은 최근 금융 당국과 접촉해 향후 원화마켓 거래소 사업권을 얻기 위한 조건 등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자금 세탁 방지(AML)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릭 윤 대표는 "당국이 AML 관련 인력을 최소 25명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마켓 거래에 필요한 고객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시중은행과도 협의를 해 왔다"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벤처투자 나선 하이퍼리즘, '토큰딜 병행' 장점 어필

하이퍼리즘의 시작은 가상자산 헤지펀드였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어 기업과 기관의 자금을 운용했다. 국내에는 가상자산 법 규제가 없었기에 한국이 아닌 일본에 본사 설립을 결정했다. 한국과 홍콩에는 지사를 만들고 적격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투자신탁과 브로커리지 사업을 이어갔다.

2022년에는 1호펀드를 결성하면서 벤처캐피탈(VC) 영역에도 진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도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이퍼리즘은 쌓아 온 경력을 살려 성장 가능성 있는 시드 단계의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상자산 투자(토큰딜)와 에쿼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하이퍼리즘 펀드의 특징이다. 발행에서 유통까지의 속도가 빠른 토큰딜을 통해 1호펀드는 2년만에 원금의 1.5배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성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2호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가상자산 운용서 성과, 예비 유니콘 등극

하이퍼리즘은 같은 대학교 동문이자 자산운용 분야 꿈나무였던 두 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했다. 일본법인을 담당하는 이원준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 국내서 몇차례 스타트업을 창업 한 뒤 일본 패밀리오피스에서 근무하며 현지 경력과 인맥을 쌓았다.

한국 법인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오상록 대표가 맡고 있다. 오 대표는 프라이빗에쿼티(PE) 출신이다. 모간스탠리 서울지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을 틈틈히 공부했다. 이런 관심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3. Blockchain Financial

벤처투자 나선 하이퍼리즘, '토큰딜 병행' 장점 어필



시드라운드에서는 카카오의 일본법인인 카카오G의 투자를 받았다. 카카오G는 하이퍼리즘 팀 구성과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점수를 줬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VIP자산운용,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스프링캠프 등이 투자사로 참여했다.

이때부터 작지만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하이퍼리즘 일본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9년 당기순이익은 810만엔(7215만원)이었다. 신생기업임에도 투자 흑자를 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1년에는 130억원 규모 시리즈B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삼성넥스트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고 삼성넥스트, 위메이드 등도 합류했다.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8000억원이다.

◇노하우 바탕으로 벤처 시장 진출...미국·일본 유망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

3. Blockchain Financial

벤처투자 나선 하이퍼리즘, '토큰딜 병행' 장점 어필

하이퍼리즘은 2022년 1000억원 규모 가상자산 펀드를 조성하면서 벤처투자로 영역을 확장했다. 법인 기반을 일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 자격으로 가상자산투자(토큰딜)와 에쿼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하이퍼리즘의 큰 강점이다. 토큰딜은 투자 시 가상자산으로 현물출자한 뒤 피투자사의 주식 대신 이들이 발행한 토큰을 투자 대가로 수취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1호펀드는 총 55개 기업에 투자했다. 미소진 자금(드라이파우더)은 소액 남아 있다. 각 투자건 별 출자액은 비공개지만 건당 10만~30만달러(약 1억3500만~4억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딜을 병행했기에 투자회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이퍼리즘 관계자는 "주로 토큰딜에서 평균 5배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회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퍼리즘 1호펀드	
결성액	1000억원
주요 LP	비공개
투자건수	55건
주요 포트폴리오	세이, 이더파이, 오아시스 등

주요 포트폴리오는 세이, 이더파이, 오아시스, 슈퍼워크 등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안데르센호로위츠(a16z) 등 실리콘밸리 대형VC 투자를 유치한 곳들이다. 특히 세이의 투자 성과는 투자액 대비 21배에 달한다. 이더파이, 오아시스 등의 수익률도 각 19, 14배를 기록 중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벤처투자 나선 하이퍼리즘, '토큰딜 병행' 장점 어필

신생인 하이퍼리즘이 대형VC들 사이 투자 례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상자산 헤지펀드 경험이 있다. 피투자사들은 단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고 성장시켜줄 전략적투자자(SI)를 원했다. 자산을 운용하면서 여러 탈중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던 하이퍼리즘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개발자로 이뤄진 인력 구조도 도움이 됐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직원 중 상당수가 개발자 출신이었고 피투자사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비즈니스모델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해킹과 같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면 사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 이에 하이퍼리즘은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이퍼리즘은 1호펀드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2호펀드를 조성 중이다. 일본 유력 기업과 공동GP 형태를 기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1호펀드 보다 확대한 15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목표는 '아시아 자금의 미국 크립토썬 진출'이다.

오상록 하이퍼리즘 공동대표는 "좋은 딜 플로우를 가지고 아시아 자본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라며 "미국 크립토썬에서 하이퍼리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에서 수학한 아시아 글로벌 인재를 적극 채용해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줄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갤럭시디지털, 암호화폐 스타트업 위한 1억 달러 펀드 출시



자산운용사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 Holdings)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갤럭시 벤처스 펀드(Galaxy Ventures Fund I, LP)로 불리는 투자 계획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인프라 및 암호화폐 프로토콜 구축에 중점을 두고 3년에 걸쳐 최대 30개 스타트업에 각각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자금 조달 라운드가 부활하고 있다. 블록웍스의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2023년 4분기에 약 31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전 분기인 17억 달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더블록에 따르면 갤럭시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마이클 워손(Mike Wursthorn)은 "수년 동안 우리는 혁신가들에 자본을 투자해왔다. 우리는 외부 투자자와 협력하기 위해 펀드를 출시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46>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주춤하는 사이 스테이블코인 '청신호'...공급량·상승세 지속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비트코인(BTC)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10%가량 하락한 6만6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상위 3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다이(DAI)의 누적 공급량은 2.1% 증가한 1414억2000만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공급량은 20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리플렉티비티리서치는 "스테이블코인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블록미디어는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캠페인의 하나로 암호화폐 고관심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분류한 88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설문을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로 아래와 같은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1. 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 될 경우

*

비트코인 현물 ETF매매 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 1.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즉각적인 매매 허용
- ☐ 2.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 조항을 수정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허용
- ☐ 3.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 후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허용
- ☐ 4.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

2. 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 될 경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 1.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며,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함
- ☐ 2.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후 과세해야 함
- ☐ 3. 금투세를 신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즉시 과세를 시행해야 함
- ☐ 4.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2년 유예 후 과세해야 함

3. Blockchain Financial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4일 현재 사전 투표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연락이 닿은 후보자들은 “설문 응답을 거부하겠다” 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감한 사안이라 응답을 할 수 없다” 거나,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며 설문지 응답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크립토 코리아가 추출한 88개 선거구 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이 중 암호화폐 고관심 유권자 수는 3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시도별 ‘암호화폐 고관심 유권자 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서울(334만 명)
 부산(35만 명)
 대전(3만9000 명)
 광주(3만7000 명)
 천안(1만4000 명)
 파주(5700 명)
 포항(5800 명)

이번 총선 당선자는 득표 차이가 수 백 표에서 판가름 나는 초박빙 지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 3 개 지역구, 파주, 포항 각각 2 개 지역구의 경우, 암호화폐 고관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크립토 코리아는 4월 10일 투표일 이전까지 최대한 후보자들에게 설문 응답을 요청키로 했다. 크립토 코리아는 총선 이후에도 당선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법' 입법 청원과 정책 광고, 세미나 지원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비트코인으로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캠페인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첫째, 디지털자산시장진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 금융당국에 입법 청원을 넣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시태그 홍보, 온라인 선전, 오프라인 정책 광고를 집행합니다. Krypto Korea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후원을 받아 왜 디지털 자산 전략이 왜 필요한 지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만큼 달려가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해시태그(#KryptoKorea #KoreaBTCETF #KoreaBitcoinETF #KimchiKrypto #KimchiBTCETF #WeWantBTCETF #한국에도비트코인ETF를 등등)와 함께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취지에 맞는 밈, 게시물을 SNS에 올려주세요. 크립코 코리아 밈 콘테스트도 열겠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497952>

3. Blockchain Financial

[Krypto Korea] 암호화폐 정책 비전 못 밝히는 국회의원 후보들

크립토 코리야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크립토 코리야 캠페인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참여 지갑을 오픈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트론 계열 스테이블코인), 리플 등 코인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원화 은행계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3. Blockchain Financial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할 것... 등록 절차 간소화"



(출처=아르헨티나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CNV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새로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이 국가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해당 산업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4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증권위원회(CNV)는 공식 정부 발표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등록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등록 프로세스의 형식과 부조리를 없애준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암호화폐 채택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가속화됐다. 이전 정부가 외화 구매를 제한하려고 시도한 것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르헨티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지 못할 경우

3. Blockchain Financial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할 것... 등록 절차 간소화"

'FATF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은 거래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제정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CNV와 로베르토 실바 회장은 지난 2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더 많은 규제를 진행하기 전에 암호화폐 회사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4. DaWinKS Overview

Blockchain Financial Technique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한 DTM, CTM & QR Pay POS 운영
- 전세계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판독과 안면인식 -> 본인확인 고도화
- KYC, AML 체크 후 QR(Wallet) 발급
- QR(Wallet) Pay 연동 실물화폐 및 암호자산 결제 POS(App) 시스템
- Metaverse/가상세계 & IRL(In Real Life) /현실세계 연동 NFT, Defi 금융서비스 실현

특허 기반의 차별화된 DIGITAL ATM 기술



- 특허 기반의 독자적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술로 KYC 완벽 구현 - 1차 본인인증
- 신분증(여권) 사진과 AI 얼굴영상(Liveness/2D,3D) 매칭 - 2차 본인인증
- 고도화된 본인인증(KYC) 기술로 불특정다수인(외국인포함) 대상 외환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 입출금·결제·환전·송금·충전·예금·대출 등 기존 금융 핀테크 + Crypto Defi 융합 플랫폼
- 전세계 유일의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동시 운영 ATM 플랫폼

2024-15호

Thank you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